

한 해를 보내며



벌써 2004년이 저물어가고 희망찬 2005년이 다가오고 있다.

금년에는 전반적인 경기 불황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어 국내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IT839 전략을 발표하고, 8대 신규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오는 2007년 IT 연간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 국내 인터넷 이용 인구는 3천만을 넘어섰으며, IT산업 수출액은 휴대전화와 반도체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세계 속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 4세대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주파수회수재배치 제도 도입 계획 등을 세우는 한편 국내에서는 IT 핵심 부품의 집중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협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회원사들의 추진사업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쳐 더욱 다양한 사업과 폭넓은 인력 양성 및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지난 3월 회원사를 방문해 경영이나 제도 등의 애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해결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협회는 회원사들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IT 종합 기술 경연장인 「SEK2004」와 부산에서 개최된 「ITU텔레콤 아시아 2004」에 회원사 제품 및 회사 홍보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회원사 및 IT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금융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IT산업지원을 위한 수출입 금융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정보통신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정보통신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정부의 IT839전략 중 신성장동력사업인 차세대 PC산업의 효율적인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위해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차세대PC표준화포럼」을 개설하고 지난 6월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의 정보통신 박람회인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EXPO COMM WIRELESS KOREA) 2004 전시회/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 동향 및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해 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ASP산업의 동향 및 미래를 조망하기 위해 한·중·일·미·싱가폴 등 5개국에 참여한 「Int'l ASP/IDC Fair 2004」를 개최했다.

또한 국내의 시스템온칩(SoC) 및 차세대 PC의 산업동향 등을 한눈에 조망해보는 「IT SoC 2004 및 차세대PC 산업 전시회」를 개최하여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내외 유수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 시점을 정확히 집어보고, 향후 전망을 살펴 보는 자리인 「2005 IT 산업전망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협회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 IT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정보통신기업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도 꾸준히 펼쳐 나가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 IT 산업의 경쟁력을 말해 주듯이 올 한 해 많은 외국 IT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협회를 방문했다.

지난 2월에는 주한 아일랜드 기업진흥청장이 협회를 방문하여 아일랜드와 국내 IT 기업간의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논의를 가졌으며, 5월에는 중국 창주시정부 관계자들이 협회를 방문하여 양국간 IT산업협력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이밖에도 중국통신기업협회(CACE) 실무대표와 싱가포르 IT 관련 협회의 방문 등이 있었다.

협회에서는 지난 해부터 이어진 중국 기관들의 방문에 이어 중국 주요 지역별 IT 관련 기관과 협회간의 협력 기반 구축과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IT 중소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하북성(석가장시), 산둥성(제남시), 절강성(항주시) 등 3개 성(省)을 방문하여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새 천년 정보통신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멀티미디어 산업의 발전과 이용촉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멀티미디어 기술대상」도 역시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상을 적극 반영한 「모바일 기술 대상」을 통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수상했다.

정보통신 분야의 벤처창업 지원과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는 올해 6회째를 맞아 날로 뛰어난 기술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우수 벤처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본 협회 부설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는 인터넷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터넷 인증시험」과 「리눅스 마스터」, 「무선인터넷관리사」시험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갈수록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무선인터넷 콘텐츠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한 인재 선발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일간 IT인재교류 활성화 및 국내 IT인력의 해외 진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일본 이바라기현 (사)정보서비스산업협회와 IT 인력수급에 관한 「업무제휴 협정 체결식」을 가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 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다.

올 한 해는 국내 IT산업이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안으로는 내실을 꾀하고 밖으로는 국제 사회와 협력을 꾀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 왔던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의 성장·발전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적극적인 진출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협회도 국내 정보통신산업 대표 협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대의 흐름에 앞장서는 정보력과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 회원사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회원사의 이익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물심양면 많은 도움과 격려를 보내 주었던 회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에는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 장 호